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0.18

미 증시, 기대와 우려 속 혼조세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기대 vs. 우려

•미 증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며 주요 3대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으나, 중소형주인 러셀 2000 지수는 강세를 보임. 장 시작 전 발표된 소매판매 · 산업생산 등의 실물경제지표는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함을 나타내며 국제수익률 상승을 촉발. 또한 미 상무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발표하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우려 키워. 그러나 기업들의 호실적과 바킨 총재의 발언이 이를 상쇄하며 장 초반 낙폭을 축소하며 장중 상승전환하기도 하였으나, 장 후반 하원의장 선출 실패 및 국제수익률 상승폭 확대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 (다우 +0.04%, 나스닥 -0.25%, S&P500 -0.01%, 러셀2000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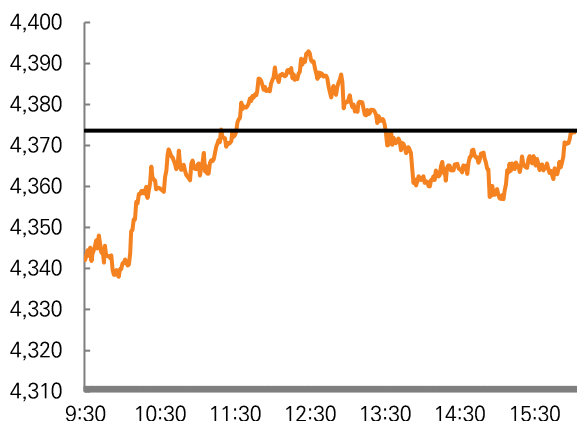
특징 종목: 엔비디아 ↓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소재(+1.01%)와 에너지(+0.98%)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美中 무역분쟁 갈등 격화 우려로 IT(-0.77%)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부각된 부동산(-0.54%) 섹터는 약세를 보임. 엔비디아(-4.68%)는 미 상무부가 對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하락. 특히 이번 방안에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인 A800과 H800이 수출 통제에 포함돼. 이는美中 무역분쟁 갈등 격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관심 높아. 특히, 중국 당국으로부터 VM웨어(-7.70%) 인수 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브로드컴(-2.01%)도 하락

한국 증시 전망: 눈치보기

•MSCI 한국 지수 ETF는 0.08%, MSCI 신흥 지수 ETF는 0.2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1.37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3% 하락. KOSPI는 0.1%~0.3%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증시는 오랜 만의 현물 순매수로 돌아온 외국인에 반색을 했지만, 이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임. 10월 들어 외국인은 국내증시에서 (전일까지) 2조 2620억원 순매도를 기록. 업종별로는 반도체(+4,190억원)와 자동차(+2,340) 등은 순매수를 한 반면, IT가전(-8,350), 화학(-6,900), 철강(-5,890) 등 주요 2차전지 기업들이 속해 있는 섹터에 대한 대규모 매도세 지속되는 중.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섹터에 대한 순매수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차별화된 움직임 지속되는 중. 전일美中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촉발된 엔비디아 급락은 국내 증시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 그러나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3분기 GDP와 소매판매 ·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 동향에 따른 증시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

S&P500 일종 차트



MIRAE ASSET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60.17	+0.98	상해종합	3,083.50	+0.32
KOSDAQ	820.38	+1.21	홍콩항셍	17,773.34	+0.75
DOW	33,997.65	+0.04	인도센섹스	66,428.09	+0.39
NASDAQ	13,533.75	-0.25	유로스톡스 50	4,152.32	+0.06
S&P 500	4,373.20	-0.01	영국	7,675.21	+0.58
캐나다	19,692.80	+0.37	독일	15,251.69	+0.09
일본	32,040.29	+1.20	프랑스	7,029.70	+0.1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기대와 우려

미 증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며 주요 3대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으나, 중소형주인 러셀 2000 지수는 강세를 보임. 장 시작 전 발표된 소매판매·산업생산 등의 실물경제지표는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함을 나타내며 국채수익률 상승을 촉발. 또한 미 상무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발표하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우려 키워. 그러나 기업들의 호실적과 바킨 총재의 발언이 이를 상쇄하며 장 초반 낙폭을 축소하며 장중 상승전환하기도 하였으나, 장 후반 하원의장 선출 실패 및 국채수익률 상승폭 확대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

상승: 기업 호실적, 토마스 바킨^{*리치몬드 연은} 총재 발언,

골드만삭스와뱅크오브아메리카는 모두 3분기 매출과 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였고, 존슨앤존슨과 록히드마틴은 연간 매출 가이드언스를 상향 조정하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증시 및 개별기업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현재까지^(17일 오전, 현지시각) S&P 500의 39개 회사가 실적 발표를 완료한 가운데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90%에 달해. FactSet은 23년 3분기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9월말 (전년대비) -0.3%에서 현재 0.4%로 상향조정하기도 하였음. 이 날 발언에 나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타당한 스토리’가 있다면서, 장 초반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부담을 느낀 증시에 우호적 영향을 줬음.

하락: 국채수익률 상승, 美中 무역분쟁 심화, 美 하원의장 공백

장 시작 전, 발표된 9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함을 나타내. 이는 국채수익률 상승을 촉발하며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매도 압력을 키워. 우선 9월 **소매판매**는 8월 수정치 0.8%(이전 0.6%) 증가에 이어 9월 0.7% 증가.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0.3%를 상회. 특히 국내총생산(GDP)에서 상품 지출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조정 소매판매(자동차 딜러, 건축자재, 주유소 제외) 역시 시장 예상(0.1%)을 크게 상회한 0.6% 증가 기록. **산업생산**은 8월 수정치 0.0%(이전 0.4%)에서 개선된 0.3%로 시장이 예상했던 0.0%를 상회. 설비가동률은 8월 수정치 79.5%(이전 79.7%)와 시장 예상(79.7%)을 상회한 79.7%로 나와. 제조업 생산 역시 이전 수정치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

견고한 美 경제의 펀더멘털은 연준의 긴축 우려를 자극시키며 국채수익률 상승을 촉발. 시장이 주요하게 보는 2년물과 10년물은 전일대비 각각 11bp, 13bp 상승한 5.21%, 4.83%를 기록하며 2006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또한 애틀란타 연은이 집계하는 3분기 미국의 실질 GDP 추정치(GDPNow)는 이전 5.1%에서 5.4%로 상향 조정되었고, JP모건 역시 3분기 실질 경제성장을 추정치를 3.5%에서 4.3%로 큰 폭 상향. 반면 CME FedWatch가 추정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연말까지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밖에 美 상무부는 對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AI 칩 규제 강화·수출 우회 차단·중국기업(13곳) 추가 제재 등에 나서자 美中 무역분쟁 우려 심화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株 약세 기록. 또한 이 날 오후에 있었던 美 하원의장 선출 1차 투표에서 공화당 내 반발 표심으로 인해,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짐 조던(Jim Jordan) 의원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도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엔비디아 급락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소재(+1.01%)와 에너지(+0.98%)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美中 무역분쟁 갈등 격화 우려로 IT(-0.77%)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부각된 부동산(-0.54%) 섹터는 약세를 보임. VF코퍼레이션(+13.96%)은 행동주의 펀드인 Engaged Capital이 지분을 확보 후 비용 절감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 뱅크오브아메리카(+2.33%), 뉴욕멜론은행(+3.82%)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후 상승. US뱅크(+6.96%)는 연준으로부터 내년 말까지 대형은행에 준하는 규제 강화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강세. 달러트리(+4.79%)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상향(중립→매수)하자 강세를 보였고, 달러제너럴(+3.31%) 역시 상승.

반면 엔비디아(-4.68%)는 美 상무부가 對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하락. 특히 이번 방안에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인 A800과 H800이 수출 통제에 포함돼. 이는 美中 무역분쟁 갈등 격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관심 높아. 특히, 중국 당국으로부터 VM웨어(-7.70%) 인수 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브로드컴(-2.01%)도 하락.

상품 및 FX시장 동향

美 국채 2년물 수익률 2006년 이후 최고

9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자 美 경제의 높은 회복력과 펀더멘털이 부각되며, 시장이 벤치마크로 삼는 美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은 전일대비 각각 11bp, 13bp 상승한 5.21%, 4.83%를 기록하며 2006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장단기금리차 스프레드는 -38bp로 전일대비 1bp 축소.

그러나 상대적으로 달러인덱스는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는데, ZEW에서 발표한 10월 독일과 유로존의 경기기대지수가 전월과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자 유로화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 또한 일본 중앙은행(BOJ)은 이 달 말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와 내년의 물가전망을 각각 3%에 가깝게, 2%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엔화 강세 현상도 달러 등락에 영향을 줬.

국제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는 소식과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공급 우려 완화되며 보험세 기록.

한국 주식시장 전망

눈치보기

MSCI 한국 지수 ETF는 0.08%, MSCI 신흥 지수 ETF는 0.2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51.37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3% 하락. KOSPI는 0.1%~0.3%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증시는 오랜 만의 현물 순매수로 돌아온 외국인에 반색을 했지만, 이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임. 10월 들어 외국인은 국내증시에서 (전일까지) 2조 2620억원 순매도를 기록. 업종별로는 반도체(+4,190억원)와 자동차(+2,340) 등은 순매수를 한 반면, IT가전(-8,350), 화학(-6,900), 철강(-5,890) 등 주요 2차전기 기업들이 속해 있는 섹터에 대한 대규모 매도세 지속되는 중.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섹터에 대한 순매수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차별화된 움직임 지속되는 중. 전일 美中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촉발된 엔비디아 급락은 국내 증시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 그러나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3분기 GDP와 소매판매·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 동향에 따른 증시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

마켓
스냅샷

美 국채 10년물 +13bp 급등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18	대형 가치주 ETF (IVE)	+0.26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82
소매업체 ETF (XLY)	+0.24	소형 가치주 ETF (IWN)	+1.22
온라인소매 ETF (EBIZ)	+0.39	대형 성장주 ETF (VUG)	-0.26
미국 인프라 ETF (PAVE)	+0.89	중형 성장주 ETF (IWP)	+0.66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1.0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0.58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04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26	미국 국채 ETF (IEF)	-0.9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70	하이일드 ETF (JNK)	-0.47
바이오섹터 ETF (IBB)	-0.13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08	물가연동채 ETF (TIP)	-0.48
반도체 ETF (SMH)	-1.1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7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소재	498.22	+1.01	+0.26	-2.81
에너지	697.70	+0.98	+2.62	-0.59
필수소비재	716.29	+0.51	+0.52	-5.30
커뮤니케이션	232.85	+0.43	+0.51	+1.39
금융	559.86	+0.40	+1.10	-3.00
산업재	872.77	+0.31	+0.18	-1.43
경기소비재	1,273.59	+0.06	-0.25	-5.89
헬스케어	1,526.17	-0.13	-0.13	-0.65
유틸리티	303.42	-0.24	+2.02	-7.30
부동산	216.33	-0.54	+1.13	-5.77
IT	3,001.63	-0.77	-0.23	+0.50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6.66	+0.62	+1.43	Dollar Index	106.213	-0.03	+0.37
브렌트유	89.90	+0.78	+3.08	EUR/USD	1.0576	+0.15	-0.27
천연가스	3.08	-1.32	-9.28	USD/JPY	149.82	+0.21	+0.75
금	1,935.70	+0.05	+3.19	GBP/USD	1.2182	-0.29	-0.85
은	23.02	+1.01	+4.75	USD/CHF	0.9004	+0.04	-0.45
알루미늄	2,177.00	-0.16	-1.60	AUD/USD	0.6365	+0.36	-1.04
전기동	7,970.50	-0.08	-0.65	USD/CAD	1.3647	+0.26	+0.47
아연	2,421.00	-1.02	-2.06	USD/RUB	97.9476	+0.49	-2.26
옥수수	489.00	-0.26	+0.67	USD/BRL	5.0352	-0.12	-1.99
밀	570.50	-1.04	+2.28	USD/CNH	7.3250	+0.23	+0.51
대두	1,296.75	+0.89	+2.06	USD/KRW	1,353.60	-0.01	+0.30
커피	157.05	+1.88	+6.47	USD/KRW NDF1M	1,351.37	+0.39	+0.7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836	+13.02	+18.32	스페인	4.004	+10.00	+12.40
한국	4.225	+2.80	0.00	포르투갈	3.611	+9.70	+9.60
일본	0.781	+2.00	-0.20	그리스	4.358	+3.60	+7.00
독일	2.882	+9.70	+10.70	이탈리아	4.889	+12.50	+16.4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